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성경말씀: 롬8:18-25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대유행, 중국 다음으로 현재는 이탈리아, <죽음의 행렬, 중국을 넘어섰다> 이탈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발원지 중국보다 많아졌다. 토요일 이탈리아는 하루에 무려 800여 명 사망, 모두 4825명이 숨졌다. 중국 사망자 수(3255명)를 넘어서면서 가장 인명 피해가 큰 나라가 됐다. . . . 의사·간호사들이 치료하다 감염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에서 2629명의 의료진이 감염됐고, 의사 사망자만 14명이다. 베르가모라는 도시에서는 약 600명의 의사 중 118명이 감염됐다. 이탈리아 언론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라는 의료진의 절규를 전하고 있다. . . . 유럽 각국은 본격적으로 군(軍)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경찰만으로는 질서 유지와 사태 수습이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위급한 환자 수송을 군인들이 맡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1000여명의 군 병력을 14개 주요 도시에 배치해 경찰과 함께 순찰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도 유사시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의무병을 일선 병원에 투입한 독일 정부는 전국의 중환자용 병상 2만8000개를 5만개로 늘리는 작업에 군을 동원하기로 했다.

어제 아침에 미국 CNN을 보았다. 역시 이탈리아 소식이 가장 큰 뉴스, 중국에서 2차 쇼크가 생길까 우려, 주식 지난 주 17.3% 폭락, 미국 뉴욕 주는 이날 은행과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 100%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다. . . . 골드만삭스는 미국 노동부가 다음 주 발표할 이번 주 주간 실업보험청구자 수가 22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CNN에 나의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제목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Bats are not to blame for coronavirus. Humans are>, 이 기사,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보여 준다. 이 글을 읽으며 틈서 8장 오늘 본문이 생각났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 >, 왜, 왜 지금이 마지막 때, 앞으로 어떤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이번 우한 폐렴의 원인: 박쥐로 알려져 있다. 박쥐의 특성: 수가 많다. 야행성, 은둔하는 동물
오늘 기사의 핵심: 여러 과학자들 박쥐 탓, 그러나 실제로는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동물학자, 질병학자들 견해, 1, 자연 생태계의 파괴, 2, 빠른 운송 수단, 질병이 널리 확산된다. 과학자들 아직도 코비드 19 바이러스 출처를 모른다. 다만 이번 바이러스와 아주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중국의 말발굽 박쥐(Horseshoe bat)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말 관박쥐, 길이 5-6센티, 날개 30센티, 몸집은 비교적 크고 등은 회갈색 또는 적갈색이며, 배는 회백색 또는 흰색이다. 낮에는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가 해질 무렵부터 밤새도록 활동한다. 주로 나방·파리·딱정벌레 등의 곤충류를 먹는다. 여름에 활동하고 겨울에는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겨울잠을 잔다. 4월 말에 잠에서 깨어나며, 번식기에 암컷은 많은 수가 무리를 형성한다. 5 ~ 6월에 새끼가 태어나고, 9월 말 무렵에는 흩어져서 제각기 겨울을 날 곳으로 간다.

우한 수산물 시장, 박쥐 판매, 박쥐 식용

유튜브 우한 (*) 시장 박쥐 먹는 사람들, 유튜브, 쇼킹한 영상,
그래서 트럼프는 꼭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른다.

박쥐 바이러스와 비슷해서 여하튼 출처가 박쥐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박쥐들이 어떻게 질병을 전달할까? 인간의 지구 환경 생태계 교란

박쥐: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동물, 그래서 서식지가 넓다. 많은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

날아다니려면 많은 에너지, 이를 위해 면역 기능이 특별하다.

영국 동물학회 커닝햄 교수 "날아다닐 때 많은 열을 내서 온도가 가장 높다. 이것은 마치 인간의 발열 현상 비슷하다. 이 일이 매일 두 번 발생한다. 먹이를 찾으러 나갈 때, 돌아올 때"

그래서 박쥐에 붙어 있는 병원균들은 이렇게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게 적응하였다. 그 결과 이런 병원균들이

다른 종으로 전달될 때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인간의 경우 발열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메카니즘, 코비드 19 이런 게 들어오면 42도까지 올라감,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 보호 섭리

그런데 문제: 박쥐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고열에도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 즉 잘 안 죽는다.

1. 일단 왜 질병이 다른 종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은 '인수감염전달' 현상, 왜 생기는가?

박쥐든 사향노루 같은 짐승이든 '인수감염전달'은 다 사람의 활동 때문에 생긴다. 박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사람이 잡아서 없애든지 먹든지 혹은 서식지를 파괴하든지) 면역 체계가 도전을 받고 병원균들의 감염이 늘어나고 확산된다. 그러면 인간에게 치명타, 인간과 비슷하다. 사람의 경우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이러스 증식, 심한 감기 증세, 박쥐도 비슷하다.

우한 시장에서는 박쥐들이 매매가 된다. 먹기도 하고 애완용으로 등

이러면 박쥐는 엄청난 스트레스, 많은 병원균을 낸다. 우한 시장의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20-21세기에는 다른 시대와 달리 사람들이 수많은 야생 동물을 이런 저런 용도로 세상으로 가지고 나온다. 가지고 나오는 규모가 심히 크다. 또 사람들이 그것들의 서식지를 사람의 주거지 등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는 달리 짐승과 인간이 같이 만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우한 수산물 시장을 생각해 보라. 수많은 동식물들, Wuhan Wet market(22절)

과거에도 인수감염이 있었다. 중국,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확산되지 않았다. 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 지금 중국 우한, 다음날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등, 그러므로 급속도로 확산된다.

우리의 교훈:

1. 이런 질병 박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다. 2.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짐승 서식지 파괴, 사냥, 인간 교통 발전,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 3. 인간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해결 가능, 그러나 이것 거의 불가능

로마서 8장의 교훈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알게 되었다. 세상에 이런 책 없다. 인간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1.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 고통 수단의 발달, 단12:4
2. 자연 생태계의 파괴, 박쥐 같은 짐승들도 신음하고 있다. 롬8:18-25
3.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맥락 설명

로마서: 사도 바울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롬3:23, 하나님의 진노(1:18)

이것을 피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롬1:16-17)

복음의 핵심: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롬3:28). 이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 역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걷는다. 그러나 여전히 죄 많은 육신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문제없다. 정죄함이 결코 없다(롬8: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9)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12-13).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14),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자녀이면 상속자이다(16-17),

상속자라도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는다. 그 뒤에 영광이 온다(17).

4.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구원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구원에는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의 구원도 포함된다.

(20) 아담과 이브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우리의 몸을 포함해 창조된 만물들이 타락과 허무를 경험할 것 말씀하심(20),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런 복박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20-21).

로마서 8장 22~23절 말씀 요약: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도 이 같은

육체적 타락과 허무와 사망을 피하지 못한다.

5. 그러나 모든 창조물이 질병과 재해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를 물려받을 날이 오고 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 바울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라고 말한다(23). 성도들은 (부활할 때 일어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타락과 허무와 질병과 재해와 죽음을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나누면서 탄식할 것이다.
6.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도 이때까지 신음하며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22), 환경 파괴, 서식지 파괴, 엄청난 스트레스, 박쥐도 사향노루도, 호랑이도, 사자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그 결과 인간은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는 인수감염 바이러스로 고생한다(현재 7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병이다(마24:7). 곳곳에서 환경파괴, 교통 발달, 순식간에 퍼져 나감, 군대를 써서 차단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온다.
7.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사람의 노력으로 백신 개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나타나야 완전히 해결된다.
그래서 짐승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18). 지상 재림 전, 약 7년 전에 휴거된다, 부활된다. 몸이 영화롭게 변해진다. 하늘나라에서 어린양의 혼인 만찬, 그리고 신랑과 함께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려온다. 바로 이 재림의 날, 이 땅에는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8. 이때의 특징, 이사야서 11장(1, 6-9), 해하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9). 그래서 창조 세상에 더는 신음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통 가운데 산다. 죽음에서 예외가 아니다.
9.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불신자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타락의 현실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다(롬8:1).
우리의 고통은 정화시키기 위함이지 징벌이 아니다(살전5:9).
10. 우리 성도들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병이 아니라도 결국은 노쇠하여 죽는다.
그러나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31).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32).
11. 그래서 우리는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서도 담다하게 35절을 외칠 수 있다.
그리고 38-39절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요약 정리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한 폐렴 같은 인수 감염 바이러스(사스, 메르스, 에이즈), 에이즈 동성애(롬1:27)

자연계의 파괴, 짐승들의 스트레스, 인간의 교통 발달,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반증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이 모든 일 해결된다.

예수님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서 기쁨의 소식,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옥 불 심판을 이루는 가장 나쁜 소식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8:1).

사람의 힘이나 노력, 성취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롬3:24).
롬8:28을 사람의 선물로 드린다.